기신론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을 '마명론'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은 저자가 마명이기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마명(馬鳴:Asvaghosa)이 어느 마명인지가 정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이설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신론의 저자라고 믿어온 마명의 활동시기를 100~150년으로 본다. 그는 원래 브라만 출신의 대학자로 총명함이 널리 알려졌던 사람인데, 당시 인도의 학문중심지였던 마가다 지방의 여러 도시에서 불교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끝에 패배하고 불교에 귀의했다고 한다.

조사 전법 법맥에 서천 12조로 되어 있으며, 부나야사(富那夜奢)의 제자로 되어 있는데 일설에는 협존자(脇尊者)의 제자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 당시 유명한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카니슈카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신론의 저자인 마명과 시인 마명이 동명이인이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에는 6명의 마명이 있었다고 하며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는 2명이 마명이 있었다고 한다. 저자가 마명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저서에는 〈불소행찬(佛所行讚)〉과 손타라난타가 미인 부인을 두었으나 아름다운 부인에 대한 애착을 끊고 출가를 해 도를 이루는 과정을 서술한 서사시 〈손타라난타시(孫陀羅難陀詩)〉가 있는데 이 두 저서는 기신론의 저자와 다른 시인 마명의 저작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신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기신론이 인도에서 저술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찬술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이에 대한 논쟁도 있었던 것이다. 이는 주로 일본의 불교학자와 중국의 불교학자 사이에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 근대 신불교 운동을 주도했던 양문회(楊文會:1837~1911)와 구양경무(歐陽竟無:1871~1943), 태허(太虛:1889~1947) 스님 등의 활동시기에 기신론을 둘러싼 다각적인 주장이 나와 논쟁이 한층 가열되었다.

양문회는 '중국불교 부흥운동의 아버지'로 칭송된 인물이었는데, 그는 일찍이 기신론을 읽어본 것을 계기로 불교연구에 몰두하여 후에 불교경전을 간행하는 등 불교사상을 선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영국에 가서 막스 뮐러(Max Muller:1823~1900)를 만난 적이 있었고 일본의 학자 난죠분유(南條文雄:1849~1927)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류하여 불교 관계 전적들의 많은 자료들을 입수하기도 하였다.

기신론의 다른 이름 '마명론' 저자 대한 다양한 異說 존재

양문회의 사상은 바로 기신론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중국에 와 있던 영국인 선교사 리차드 티몬시(Richard Timohthy:1845~1919)에게 기신론을 선물하고 이를 영역하게 하여 1907년에 상하이에서 기신론 영역본이 나오게 하기까지 하였다.

양문회는 기신론이 불교를 배우는 최적의 입문서이고, 교문(敎門)과 종문(宗門)을 회통하고 여러 경전들을 통섭하여 포괄하는 대승불교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능엄경〉, 〈능가경〉, 〈화엄경〉, 〈법화경〉 등 대승경전이 기신론을 통달하면 저절로 쉽게 이해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미 많이 알려진 기신론의 3대 소인 혜원의 〈기신론의소〉와 원효의 〈기신론해동소〉, 그리고 법장의 〈기신론의기〉뿐만 아니라 명나라 때 진계가 지은 〈기신론찬주〉와 덕청이 지은 〈기신론 직해〉, 지욱이 지은 〈기신론열망소〉 등을 간행하였고 만년에는 수집한 각종 기신론 주소를 모아 〈대승기신론 소해회집〉을 간행하였다.

저자 마명(馬鳴)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현수소(賢首疏)〉에서는 마명이 태어났을 때 말이 감동하여 울었으므로 마명이라 했다는 설과 마명이 거문고를 잘 탔는데 말이 듣고 슬피 울었다는 설, 그리고 월지국의 왕이 말 7필을 굶겨 1주일이 지난 날, 마명에게 법좌에 올라 설법을 하게 하면서 주린 말들에게 먹이를 주었으나 마명의 법문을 듣느라고 먹이를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법문을 들었으므로 마명이라 했다는 등 여러 가지로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어떤 마음으로 보시하겠습니까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㊴ 재물 희사의 종류

捨財物者。凡有二種。一者命終時捨。二者布施時捨。死時捨者。一切都捨無有毫釐至後世。布施捨者。捨於少物得大果報。何有知者見此過患而不行施。若行施時令受者喜悅自亦喜悅。若人不能深生喜悅便自欺　。若有乞者有所求索。為求有故施與少物心則歡喜。復有施者自往施與。不求果報而行大施。餘有少許心中快樂不可為喻。設有美食若不施與而食　者不以為美。設令惡食得行布施。然後食者心中歡喜以為極美。若行施竟有餘自食。善丈夫者心生喜樂如得涅槃。(사재물자。범유이종。일자명종시사。이자포시시사。사시사자。일체도사무유호리지후세。보시사자。사어소물득대과보。하유지자견차과환이불행시。약행시시령수자희열자역희열。약인불능심생희열변자기광。약유걸자유소구색。위구유고시여소물심즉환희。부유시자자왕시여。불구과보이행대시。여유소허심중쾌락불가위유。설유미식약불시여이식담자불이위미。설령악식득행보시。연후식자심중환희이위극미。약행시경유여자식。선장부자심생희락여득열반。)

번역

재물을 희사하는 것에 무릇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명이 다할 때까지 희사하는 것과 둘째, 보시해야할 때 희사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희사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을 희사하되, 털끝만큼도 후세에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보시를 해야 할 때 희사하는 것은 적은 재물을 희사했을지라도 큰 과보를 받습니다. 뉘가 알겠습니까. 이 과오와 환난을 보고 보시를 행하지 않은 것인 줄을. 만약 보시를 행했을 때 가령, 받는 이가 기뻐하고 역시 기뻐하되 만약, 사람을 마음 깊이 기쁘게 할 수 없다면,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인 것입니다. 만약 구걸하는 이가 있어 구하고 찾는 바가 있으면, 위하여 구하는 것이 있어 베풀어 주면 적은 재물에도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다시 보시하는 이가 있어 스스로 가서 베풀어 주되 과보를 구하지 않고 크게 보시를 행하면, 남은 것은 적어도 심중의 즐거움은 비유할 수 없게 됩니다. 설령 거친 음식을 얻어 보시를 행할지라도 자연히 뒤에 먹는 이가 심중에 기뻐하며 지극히 좋은 음식으로 여기게 됩니다. 만약 보시를 행할 뜻으로 자기의 음식을 남기는 착한 대장부는 마음이 기쁘리니 열반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해설

'마음은 의식(意識)'이다. 이 말은 불교 유식학(唯識學)의 기본이다. 의식하여 짓는 것을 업식(業識)이라고 한다. 업식은 인과(因果)를 만드는 일이다. 인과를 다른 말로 업(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불성(佛性)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인식의 근본작용을 이르는 말이다. 인식의 근본을 일러 여래장(如來藏)이라고도 한다. 선사상에서는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생이 불성을 가졌다는 말은 곧 의식작용의 근본을 가졌다는 말이다. 수행을 통해 근본자리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이나, 불성을 찾는다거나, 본래의 마음을 찾는 다는 것은 인도의 브라만 사상을 차용한 것이지 근본자리는 돌아갈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는 본래 그 자체로 여여(如如)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의식을 사용하느냐가 부처이거나 보살이거나 그냥 중생이거나의 차이일 뿐이다. 이제 제바라보살은 거듭 다시 묻는다.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고려 말 공민왕의 스승이셨던 나옹스님께서 그의 누이에게 준 게송이 있다.

너무도 유명한 널리 알려진 게송인데 당시 스님의 누이는 아미타불을 친견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아미타불을 밤낮 없이 염송(念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지켜보며 나옹스님은 누이에게 아미타불을 안겨 주는데 그 게송은 다음과 같다.

'아미타불이여! 어느 곳에 계십니까?(阿彌陀佛 在何方) 마음모아 간절하게 잊지않고 찾나이다.(着得心頭 切莫忘) 생각, 생각이 다하여 생각 없음에 이르니(念到念窮 無念處) 눈, 귀, 코, 입, 몸, 뜻, 그대로 금빛 찬란한 아미타 부처인 것을.(六門 常放 紫金光)'

그렇다. 아미타 부처님은 십만 팔천 국토를 지난 곳의 서방의 극락세계에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아미타불을 밤낮으로 간절심으로 찾고 또 찾았으나 마음이 맑아져 생각마저 끊긴 절대적 생각 없음에 이르고 보니 아미타불과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머무는 곳이 정토, 만나는 사람이 부처 마음모아 정진하면 내가 부처임을 안다

눈, 귀, 코, 입, 몸, 뜻, 이대로가 부처요 움직이는 진리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서방의 극락세계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리면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 아님이 없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 아님이 없는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거나 높은 곳에 있거나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게 아닌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드러나 있는 것이다.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빨래처럼 널려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세상만사가 시험지의 답안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눈높이에 따라 삶도 사랑도, 정의도 흔들릴 수 있고 가치기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형이하학(形而下學)보다는 형이상학(形而上學)쪽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역(周易)〉의 '계사상전(繫辭上傳)'에 보면 형이상자(形而上者)는 도(道)라 하고 형이하자(形而下者)는 그릇(器)이라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형이상학은 보여주고 쥐어 줄 수 없으나 형이하학은 증명해 보여 줄 수 있는 과학과 같아서 큰 그릇 작은 그릇과 내용물까지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겪게 되는 것이다.

신(神)과 영혼과 천국을 형이상학으로 포장해 과대선전을 늘어놓으며 교세확장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요즘 세태의 종교계의 현주소일 터이다.

그러나 불교만은 다르다. 불교는 논리적인 종교이면서 과학적인 종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설법의 다섯 가지 원칙으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논리와 표현을 갖춰 설법하라고 가르친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증험 될 수 있는 성질의 내용과 둘째는 때를 거르지 않고 과보(果報)가 있는 성질의 내용과 셋째는 누구나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내용과 넷째는 열반(궁극적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성질의 내용과 다섯 번째는 지혜 있는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성질의 내용으로 설법하라는 것이다.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분법적인 상학(上學)과 하학(下學)에 머물지 않는다. 오로지 마음 중심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논리로 발길 닿는 곳이 극락세계요 만나는 사람이 곧 부처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미타불은 서방의 극락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간절심으로 마음모아 정진(精進)하면 내가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본래 동, 서, 남, 북은 없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 이 순간임을 잊지 말 일이다. 나는 언제나 아웃사이드가 아닌 인사이드의 오늘의 주인공인 것이다. 내가 그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듯 그 누구도 나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쯤해서 묻고 싶다. 왜 불교관련 TV에 광고로 등장하는 사찰과 주지 스님께서는 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가라고 선전하는가? 왜 소원성취와 영가천도 도량임을 마르고 닳도록 강조 하는가? 왜 나옹스님이 누이에게 준 게송의 뜻은 잊고 있는가? 설법의 다섯 가지 원칙은 왜 지키지 않는가?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개운한 삶이 수행자의 삶인데….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수행 정진중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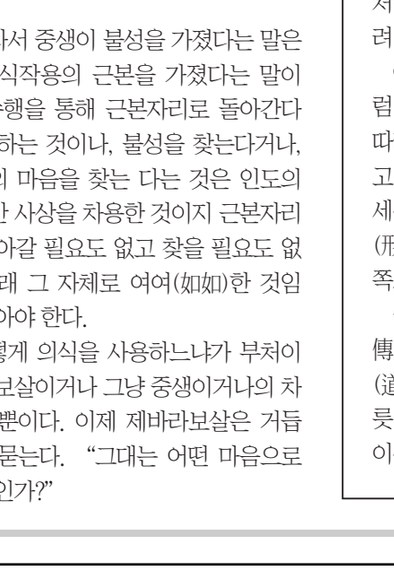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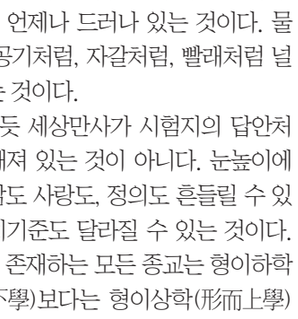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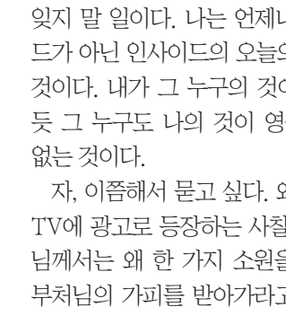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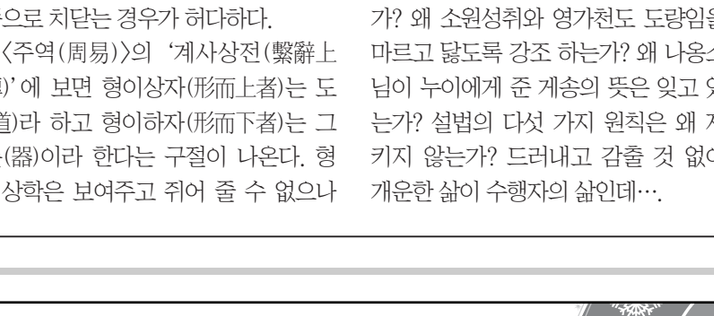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